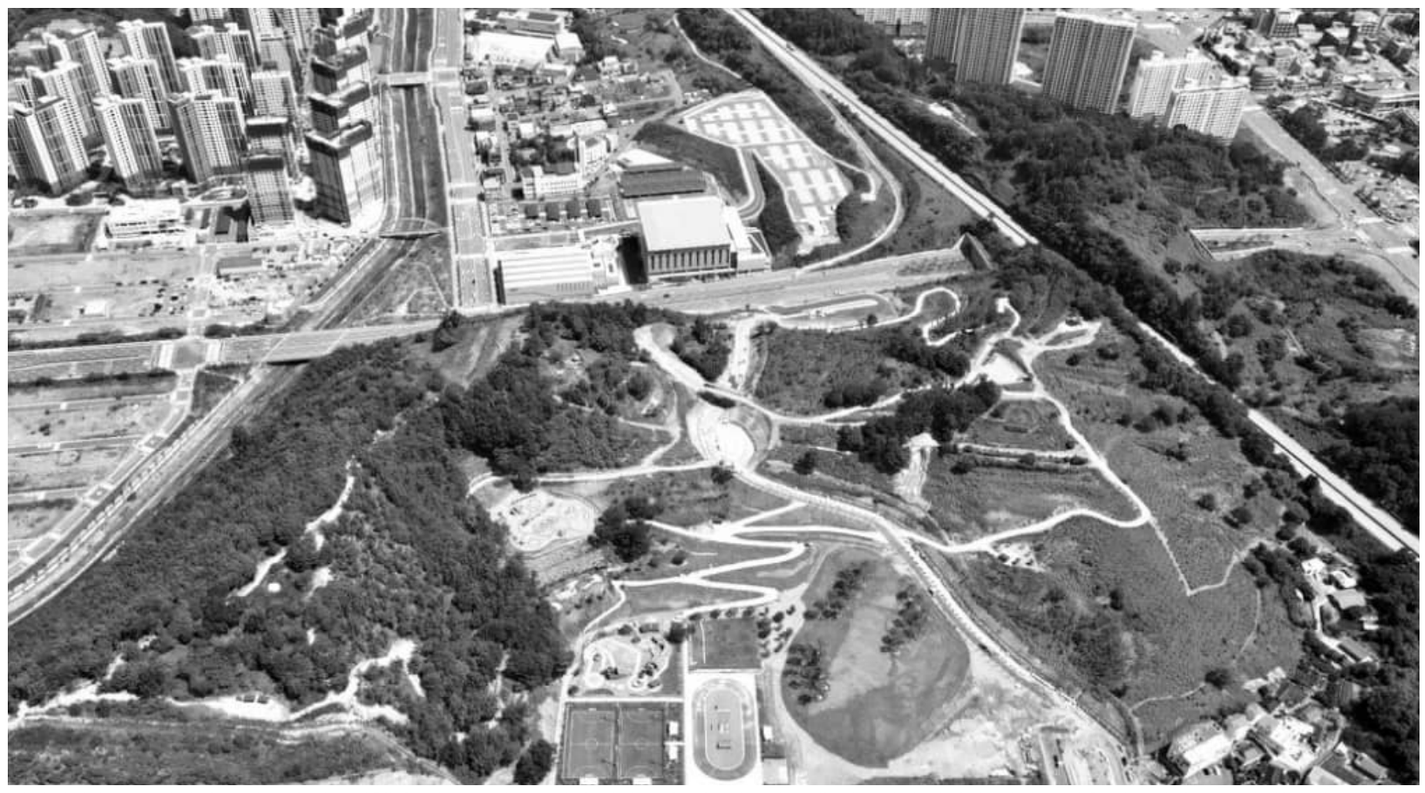
도심 명품공원·경관숲…광양시 녹색도시 조성 속도 낸다

성황 택지개발지구 52만6929㎡ 규모 근린공원 이달 중 완공

동천 경관광장·백운유원지 둘레길…산책로 잇는 '시민 운동길'도



광양시가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명품공원과 경관 숲을 갖춘 '녹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이달 조성을 마무리하는 16만평(52만6929.7㎡) 규모 성황근린공원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 성황 택지개발지구에 16만평(52만6929.7㎡) 규모 근린공원이 이달 안에 조성되면서 광양시의 녹색도시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도심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운동길'과 '복합산림경관숲' 등을 마련하며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성황 택지개발지구 안에 52만6929.7㎡ 규모 성황근린공원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달 초순 기준 공정률은 95%로, 이곳은 아파트단지·성황체육관·수영장을 잇는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광양읍 용강리에 또 다른 녹지공간인 동천 경관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2만3863㎡ 규모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토지보상비 40억원과 공사비 75억원 등 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된다.

동천을 중심으로 녹지공간과 친환경 특화 휴게공간을 만들고, 인근 목성리와 닿을 수 있는 보도교도 설치한다.

봉강면 백운저수지 백운유원지에는 둘레길이 펼쳐진다. 이 일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리조트 조성 민간투자 사업'이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 안에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심 안에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시민 운동길 조성'은 광양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이다.

와우공원에서 마동체육공원을 잇는 길이 500m·폭 3m 산책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내년 말까지는 삼화섬공원 산책로 연결로를 설치한다. 이곳 산책로는 5차로에 걸친 도시계획도로에 끊겨 있었다.

앞으로 마동 저수지생태공원과 마동 현충탑공원 등 산책로를 연결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산과 바다, 공원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마동 현충탑공원 경관 숲을 만들고 올해는 광양읍 우산공원에 산림경관 사업을 펼치면서 '명품공원'을 선보이고 있다.

마동 현충탑공원에는 철쭉과 산벚나무 등 1만1640그루를 심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양읍 우산공원 814㎡에 1만2710그루를 심어 복합산림경관숲을 만들었다. 광양시는 우산공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수국정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중동근린공원, 마동생태호수공원, 마동현충탑공원, 와우생태호수공원 등 4곳에서 즐길 수 있는 '숲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등 41개 기관 750여 명이 이용했다.

광양시는 주요 도심공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관리계획을 세웠다.

읍성길 경관광장과 근린공원 무장애 도시숲, 어린이 물놀이터, 맨발 황톳길 조성 등이 순서대로 추진된다.

광양시 도시공원관리단 43명은 지역의 모든 공원 159곳을 대상으로 환경 정비를 벌이며 녹색 쉼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녹색도시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안에 있는 공원과는 공원행정·공원조성·지역공원·도시공원 등 4개 팀으로 나눠 보강했다. 2040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광양읍·황길·중마 등 권역별 녹색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노후화된 근린공원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공원시설 신규 조성과 함께 광장 인프라도 확충해 광양시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의료원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들어섰다

전남 14만여 장애인 건강 관리

전남지역 첫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들어선 순천의료원에서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지역 14만여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할 전남 첫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정아영)가 순천의료원에 들어섰다.

최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남 14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건강검진, 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제공사업 ▲보건의료인력, 장애인·가족 교육사업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을 연 센터는 모두 17곳이며, 광주센터는 지난 2021년 전남대학교병원에 개소했다.

보건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지역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미설치 지역인 세종과 울산에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061-759-9506~10)할 수 있다.

전남 센터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김정희 전남도의회 의원,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 최현아 순청시의회 위원장, 전남도 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계자는 "전남도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의 튼튼한 기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매천도서관 22~23일 이틀간 '책 축제'

전유성·박찬일 인문학 강연

전유성

박찬일

구례군 매천도서관(구례읍 봉남리)이 독서의 계절을 맞아 오는 22~23일 이틀 동안 '책 축제'를 연다.

'구례 책 축제'는 '오픈 라이브러리 B.I.G(북 인 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 오후 7시에는 코미디언 전유성이 인문학을 다루는 강연 '심심하십니까'를 가지고 강단에 선다.

이튿날에는 인형극 '돌고래 아파트의 파란 분수'와 오치근 작가의 큰 그림책 체험, 서율밴드 음악 공연, 박준 시인과 대화, 박찬일 요리사의 인문학 강연 등이 진행된다.

구례 어머니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원화 전시 '하사마을 어머니 화전가'도 관람객을 맞는다.

도서관 곳곳에서는 '오픈 북 카페'와 탄소중립 체험, 인생 네 컷 사진 촬영, 얼굴 꾸미기(페이스페인팅), 책갈피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구례 책 축제' 참여 신청은 구례군 매천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10명중 9명 고흥군 민원응대 만족

암행평가단 활동 결과 분석

근무환경·상담태도 順 높아

고흥군이 방문민원응대 평가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민원 서비스와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한 '민원 응대 암행평가단' 운영 결과 87.1%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민원 응대 암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10명을 위촉했다.

군민 참여형으로 모집된 평가단은 군청과 16개 읍·면을 직접 방문하고 민원인 맞이 태도, 민원 상담, 민원 종결 서비스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직자의 민원 응대 품격을 직접 체험하면서 평가했다.

평가단 활동 결과 부서 방문 민원 응대 만족도는 87.1점으로 지난 5월 실시한 1차 결과 85.5점에 비해 1.6점이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무 환경 92.0점, 민원인 상담 태도 88.2점, 민원 맞이 태도 86.5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선 8기 고흥군 친절·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흥군은 ▲공직자 친절 교육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민원 처리 단축 결과 피드백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배부 ▲민원 담당자 시상·격려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점검해 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속도감을 높이는 등 촘촘한 정책으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의 품격을 높여왔다"면서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한 민원 행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 용역…2028년 30만명 채운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연계 3만명 주거단지 조성 등 10대 사업 제시

여수시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 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 인구는 매년 줄어 2023년 8월 말 현재 27만 2000여 명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인구소멸 위기 이슈와 맞물려 더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교육 등의 사유로 떠나는 청년인구 유출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 '여수시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와 연계한 3만명 수용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해양 신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특히 '4대 전략 10대 사업'을 제시할 예정으로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거리 조성 ▲여수형 압축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공기관 유치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이민자 지원 ▲여수형 손자녀 돌봄 등의 정책발굴계획도 포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단 등 지역 인프라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인구 증대 방안 등 시민 욕구를 반영한 여수시만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 후에는 '여수로의 초대 30만 시민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 옥과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사진〉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옥과공공도서관은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외단열 벽체 교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옥과공공도서관을 선정해 국비 6억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10년 넘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곡성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옥과공공도서관이 이번 사업을 통해 새 단장을 마치면 연간 전력 소모량이 30%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옥과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도서관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더 편안한 실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옥과공공도서관(061-360-8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군 가을 수확기 농촌 인력난 해소 나선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진

보성군이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요건 등을 사정에 맞게 완화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보성지역 농가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도시지역 구직자를 연계하는 데 활용된다.

보성군은 지난 6월 '전남도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9200만원 등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이 사업비를 기반으로 지역 농가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보성지역 외 거주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3만5000원과 농가 중식비·간식비 1만2000원, 농산물 제조가공기업 4대 보험 실비(1인 1일 기준) 등을 지급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